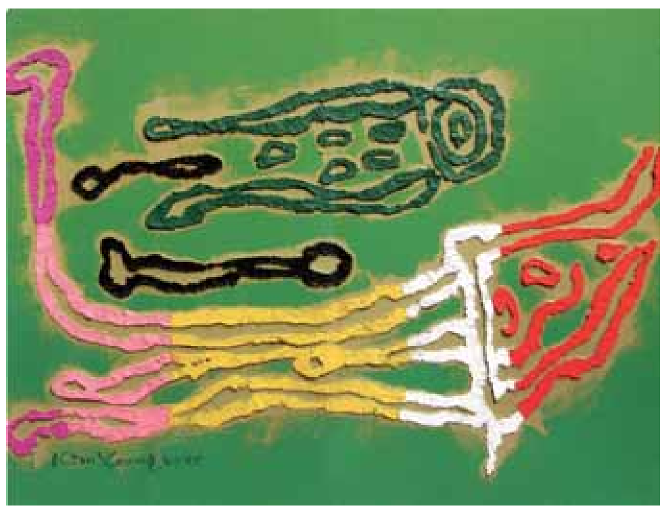


‘Recollection’

미니멀한 조형성이 갖는 무한대의 울림

담양 M갤러리 김영희전 … 30일까지

담양 M갤러리는 오는 30일까지 서양화가 김영희씨를 초대해 ‘미니멀한 조형성이 갖는 무한대의 울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절제된 색과 단순한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화면구성을 통해 끊임없는 조형적 실험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작가의 작품은 마치 부조를 보는 것과 같이 오브제형식의 기법을 반복적으로 덧입혀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지극히 절제된 단색조의 화법은 오브제와 맞물리면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간다. 고대 벽화를 보는 것과 같은 독특한 이미지와 그 내면의 잔잔한 리듬감이 인상적이다.

김씨는 이밖에도 각국을 여행하면서 바라본 풍경과 느낌을 압축해 새롭게 그려낸 작품들도 함께 전시한다.

김씨는 (사)에뽀끄와 한국미협 회원,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381-988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름 길목 플루트 선율 어때요

이현경 독주회 23일 광주문예회관

이현경 플루트 독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전남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Saint maurt 국립 음악원, Poissy 시립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8년 창단한 에꼴드 플루트 앙상블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중이다. 조선대·광주대 등에도 출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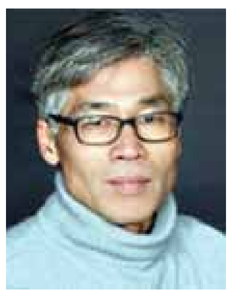
연주 레퍼토리는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함부르크 소나타 G단조’, 피에르 상칸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프랑크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다. 또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 무도회’를 모티브로 한 쥬낭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면 무도회 환상곡’이다.

문의 010-3631-69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하는 인문학자’ 김진송씨 초청

강진아트홀 18일 문화강좌



강진아트홀은 오는 18일 오후 7시 대공연장에서 ‘목수 김씨’, ‘일하는 인문학자’ 등으로 불리는 김진송씨를 초청해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강진아트홀이 진행하고 있는 독립영화 상영프로그램 6번째 시간으로 김씨는 ‘이야기의 상상력’을 주제로 강연을 이끌 예정이다.

김씨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이야기하는 책벌레’, ‘폭주족’ 등 나무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었던 영상물들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와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나온 김씨는 미술평론, 전시기획, 출판기획 등의 일을 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 ‘상상목공소’,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가부루의 신화’ 등이 있다. 문의 061-430-397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보성 우종미술관서 동·서양화 ‘만찬’

개관 7주년 기념 8월 24일까지 소장품전

1전시실 ‘빛으로 한국을 그리다’
오지호·이인성·오치균 등 서양화가 13명 16점

2전시실 ‘6대가 산수풍경화전’
김은호·허백련·박승무·이상범·변관식·노수현 작

노수현 작 ‘산수’

이인성 작 ‘나부’

‘백남준, 앤디워홀, 마르크 샤갈, 천경자, 호안미로, 무라카미 다카시, 오지호, 오치균, 이대원, 김흥수, 최쌍중, 이중섭….’

우종미술관(관장 우영인)은 보성에 있는 작은 사립미술관이지만 소장품에서만큼은 웬만한 미술관을 압도한다. 소장품만도 회화를 비롯해 조각, 공예품, 고미술품, 현대미술품까지 모두 1300여 점에 이른다.

우종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손꼽힐 만하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작가들의 작품을 상당수 소장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개관한 우종미술관 설립자는 미술애호가로 알려진 (주)와이엔텍 박용하 회장이다. 박 회장은 생전 산수화와 공예품 등 미술품 수집을 하던 부친 밑에서 자연스럽게 미술 접하고, 집에 머무르던 화가들을 보고 자라면서 미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됐다. 특히 그는 일본, 동남아 등에서 열리는 옥션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미술품 수집에 열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부친 박우종 선생의 이름에서 따온 우종미술관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과 2층은 기획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층은 고미술품과 도자기, 토기 등 상설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종미술관이 개관 7주년을 맞아 8월 24일까지 미술관 1, 2기획전시실에서 대규모 소장품 기획전을 연다.

제 1기획전시실에서는 ‘빛으로 한국을 그리다’를 주제로 오지호, 이인성, 이마동, 윤중식, 김원, 배동신, 장이석, 김흥수, 황영성, 이대원, 오치균, 오승우, 오승윤 등 서양화가 13명의 작품 16점을 전시한다.

전시는 1960년대 이후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항구풍경과 설경을 소재로 한 오지호의 ‘해경’, 인상파를 기조로 향토적인 색채를 표현한 이인성의 ‘나부’ 등 작품을 조명한다.

또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 율동감이 넘치는 선과 민족 전통의 원색으로 찬란한 빛과 자연을 노래한 이대원의 ‘농원’과 ‘못’ 등 인상주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제 2기획전시실에서는 ‘6대가 산수풍경화전’이 진행된다. 6대가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한국화가인 김은호, 허백련, 박승무, 이상범, 변관식, 노수현을 지칭하는 말로 1940년 조선미술 창립 10주년을 맞아 ‘10대가 산수풍경화전’에서 유래했다.

목가적 향토미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민족정서에 맞게 한국의 자연을 표현한 이상범, 강인한 필치와 짙은 먹색의 대비를 통해 그만의 독자적 화풍을 구축한 변관식, 웅장한 자연미를 창조해 낸 노수현, 농묵의 은은한 변화로 자연에 대한 소박한 시선과 관조적 인생관을 한결같이 보여주는 박승무, 전통 남종 문인화를 바탕으로 자연을 관념 산수로 아름답게 빚어낸 허백련, 채색을 통해 풍속화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낸 김은호의 작품들에서는 자연을 보는 작가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문의 061-804-1091～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도립어린이국악단 창단 9주년 기념 내일 무료 공연

희망을 품고 떠나는 여행

가야금 협주곡 ‘침향무’·종합극 ‘세계로 희망으로’ 등 꾸며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14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창단 9주년 기념 무료 정기공연 ‘희망을 품고 떠나는 여행’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정기공연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사물놀이, 가야금 협주곡, 창작무용, 종합극 등 80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가야금 협주곡 ‘침향무’를 시작으로 꽹과리, 징, 장고, 북 4가지 타악기의 어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앉은반 사물놀이, 어린이단원들의 귀여운 율동을 볼 수 있는 무용 ‘봄빛 설레임’ 등이 준비됐다.

하이라이트 무대인 종합극 ‘세계로 희망으로’는 다양한 타악기들의 리듬이 어우러져 웅장함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다.

도립어린이국악단 창단 9주년을 기념해 어린이국악단의 활동기록을 담은 ‘히스토리 영상’도 선보인다.

어린이국악단은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56명(객원단원 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총괄지휘는 정기연 전남도립국악 상임단원이 맡았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청소년 끼 발산 토요일

내일 ‘동구청소년 어울림마당’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2014년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이 14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매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 5시 금남근린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지난해까지 청소년문화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오감만족’을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는 ▲청소년들이 갈고 닦은 끼를 뽐내는 공연마당 ▲월별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는 체험마당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카페테리아마당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14일 열리는 첫 행사는 ‘청소년이여 모여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1부 체험마당은 ‘세월호’ 부스(잊지 않겠습니다) 운영 등으로 꾸며지고 2부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 소개, 3부 청소년 공연마당에서는 음악난타, 밴드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233-7224. /김경인기자 kki@